2019년 3월 15일 자 진짜 최종 2019.3.14 7:31 AM 페이지18 001HQ-CTP-cmyk 2540DPI 175LPI

디자인협회, 제63회 방콕 보석박람회 초청 참가

- 서애란 회장 '크로스오버' 주제로 세미나 발표 -

제63회 방콕보석박람회(The 63rd BANGKOK GEMS & JEWELRY FAIR)가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방콕 IMPACT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회장 서애란, 이하 디자인협회)는 박람회에 초청되어 서애란 회장 외 9명의 회원(오효근, 김해규, 양경남, 김연하, 김정숙, 이정순, 우하나, 문지선, 남유진)이 참석했다.

Royal Jubilee Ballroom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태국 공주(PRINCESS SIRIVANNAVARI NARIRATANA) 및 디자인협회 회원들을 비롯한 VIP 손님들이 참석했으며 Thailand's Magic Hands Jewelry & Fashion Show가 진행됐다.

21일에는 한국, 영국, 태국의 초청발표 세미나가 진행됐다. 서애란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여 'Crossover을 통한 현대주얼리디자인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크로스오버란 여러 장르가 교차한다는 의미로 주제 발표에서는 현재 크로스오버를 활용한 주얼리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고 크로스오버 주얼리 디자인의 필요성과 접근 사례를 분석해 설명했다.

크로스오버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전의 크로스오버는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이 연관성 있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산업 간의 크로스오버가 에스닉(ethnic), 퓨전(fusion), 하이브리드(hybrid), 컨버전스(convergence), 유니버셜(Universal),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등으로 세분화 되면서 더욱더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는 소비태도가 가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애란 회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소비자 니즈를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주얼리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 시대 주얼리 업계와 디자이너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이미 창의성이라는 자산을 가진 디자이너는 디자인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사업유형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만 현재의 레드오션에서 벗어난 블루오션의 사업 모델을 펼쳐나가는데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미래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디자인협회 회원들은 박람회뿐만 아니라 GIT(The Gems and Jewelry Institute of Thailand) 및 Gemopolis 산업단지도 방문했다.

강민경 기자

열악한 작업환경이 불러온 죽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자의 6가지 의무 준수해야"

지난 3월 3일 KBS 9시뉴스에서는 "방치된 '청산가리'...죽음 택한 세공노동자"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됐다. 종로 주얼리단지 내에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에 대한 보도였다.
KBS는 청산가리 등의 위험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작업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형, 이거(환풍기) 잘 안 빨려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

작업자 앞에서 끓고 있는 황산과 뻥튀기 작업 시 사용되는 청산가리. 0.2그램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는 독극물 청산가리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 물질 관리 부주의로 지난 1월 10일 생활고를 겪던 세공사가 청산가리를 먹고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바로 옆에 청산가리 그런 독극물이 있으니까 갖고 가서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잖아요."

지난해 11월 노동청의 작업환경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종로의 세공업체 중 7곳을 임의로 뽑아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 적발로 업체 모두 작업 환경 내 위험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KBS는 노동자들에게 위험 물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야.' 같은 안일한 생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거죠."

뉴스는 비용부담과 관행을 핑계로 방치된 작업환경에서 세공사들의 비극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마무리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6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비·비치하고 교육해야 한다.
-특정 물질 사용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일부 유해요인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
-매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 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금속노조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노조는 건강하게 일 할 권리.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주장합니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유해물질관리뿐만 아니라 주얼리 노동자 특수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말했다.

/ 강민경 기자